



보도일시	7. 7.(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7.(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
담당과장	최 진 (044-203-2641)	담당자	사무관 김아라 (044-203-2649)

국가기증 이건의 소장품 7월 21일부터 대국민 공개

- 국가기증 이건의 소장품 활용방안 발표 -

-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인력 투입, 조사·연구·전시·교류 본격화
- ▲ 7월 2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증품 특별전 개막, 지역 순회 전시도 추진
- ▲ '가칭) 국가기증 이건의 소장품관(약칭: 이건의 기증관)' 건립 추진, 후보지는 서울 용산과 송현동 2곳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7월 7일(수), '국가기증 이건의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이건의 회장의 유족 측이 문화재와 미술품 총 23,181점(국립중앙박물관 21,693점, 국립현대미술관 1,488점)을 기증한 이후, 문체부는 기증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의 소장품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총 10차례 논의를 거쳐, 기증품 활용에 대한 주요 원칙을 정립하고 단계별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 이건의 기증품 활용의 네 가지 기본원칙

이건의 기증품을 활용하는 기본원칙으로는 ①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②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③ 전문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④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의 네 가지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국가*에 소장품을 대규모로 기증한 취지를 존중할 방침이다. "우리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사랑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라는 고인의 뜻을 고려해 방대한 기증품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기증품의 역사적·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규명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여 앞으로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국가에 기증하면서 작가(작품) 맥락에 따라 지방 미술관 5곳에 별도로 기증하였음[광주시립미술관(30점), 전남도립미술관(21점), 대구미술관(21점), 양구 박수근미술관(18점), 제주 이중섭미술관(12점)]

두 번째로 동서양, 분야, 시대, 유형을 망라해서 수집된 이건희 기증품의 통합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을 끌어낸다. 특히, 문화적 융·복합, 시대·분야 교차에 기초한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임을 고려해 통합적 관리·조사·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증품의 융·복합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융·복합적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 분야별 전문인력과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문화적 상승효과를 높인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기증품의 조사와 연구, 보존처리, 전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증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문서와 서적 등 전적류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등과 협력하고, 리움미술관 등 국내외 박물관·미술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류·전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문화예술 생태계 및 관광과 연관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외 우수 박물관에 비해 국내 박물관·미술관의 외국 관람객 방문 선호도와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문화예술 생태계와 시장에 활력을 제공하고, 관광 등 다양한 관련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박물관·미술관을 국외에서도 반드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세계적 문화품격과 브랜드 가치도 더욱 높인다.

※ 2019년 기준 외국인 관람객은 루브르 박물관 약 720만 명, 영국박물관 약 390만 명인 데 비해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은 10~13만 명 수준임.

□ 이견희 기증품의 단계적 활용방안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마련한 단계별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방대한 기증품의 등록·조사·연구·데이터베이스(DB) 구축 추진

문체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기증품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과 조사, 연구 작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부터 추진한다. 현재 기증품의 재질별 분류, 고유등록번호 부여, 사진 촬영 등 기증품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2년부터는 등록이 완료된 기증품의 분야별 기초조사와 학술연구 등을 통해 그 가치와 의미를 규명하고, 등록과 조사·연구가 완료된 기증품은 순차적으로 이(e)-뮤지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전국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이미지와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체제(플랫폼)

신속한 기증품 등록과 내실 있는 분야별 조사·연구를 위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30명, 국립현대미술관은 17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시, 추가 인력을 확보해 등록·조사·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 7월부터 기증품 대국민 공개, '22년 하반기부터 지역 및 국외 전시 추진

7월 21일(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견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을 동시에 개막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층 서화실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 1층에서 '이견희 컬렉션 특별전 ; 한국미술 명작'을 통해 주요 작품을 공개한다.

기증 1주년이 되는 내년 4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하나의 공간에서, 기증 1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 리움과 지방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도 함께 전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기증 1주년 전시는 분야와 시대, 동서양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영감과 감동을 주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2년 하반기부터 연 3회 이상 지역별 대표 박물관·미술관 순회 전시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중심의 전국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국 13개 국립지방 박물관, 권역별 공립박물관·미술관 및 이번에 별도로 기증받은 지방박물관과도 협력해 지역에서도 이견희 기증품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3조):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지역 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함

아울러, 미국 엘에이카운티미술관(LACMA),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영국박물관 등 국외 주요 박물관·미술관과의 전시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문화재와 미술품의 우수성을 국외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 (가칭)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관(약칭: 이견희 기증관) 건립 추진, 후보지는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2곳

문체부는 기증품 2만 3천여 점을 통합적으로 소장·관리하면서, 분야와 시대를 넘나드는 조사·연구·전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증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증품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 건립되는 기증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새로운 장(場)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견희 기증관(가칭)을 통합된 별도의 공간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위에서 언급된 네 가지 기본원칙을 토대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가 최적이라는 의견을 문체부에 제안했다.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모두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기반시설을 갖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인근에 있어, 연관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상승효과를 기대할만한 충분한 입지여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문체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기증관 건립과는 별도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고, 권역별 분포와 수요를 고려한 국립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별 특화된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의 협력을 통해 조성·운영되는 새로운 문화시설 운영모델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이견희 기증품 관련 전시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다시 한번 기증을 결정한 유족 측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대규모 기증을 계기로, 새로운 기증관이 건립되면 우리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고, 대한민국의 문화강국 브랜드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과 관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칭) 명단

 <p>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김아라 사무관(☎ 044-203-264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 **위원회 위촉 명단 (7명)**

*가나다 순

성명	현직	주요경력	비고
김영나	서울대 미술사학과 명예교수	오하이오 주립대 미술사 박사 국립중앙박물관장	위원장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인류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관광진흥비서관	
목수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신상철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프랑스 소르본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확대 이전 지문위원	
양현미	상명대 교수	홍익대 대학원 미학과 박사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	
장인경	철박물관 관장	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 박물관·미술관 협회장	
정연심	홍익대 예술학과 교수	뉴욕대 미술사 박사 뉴욕주립대 FIT 교수	

※ 필요시 위원 추가 위촉할 수 있음

※ 당연직 위원 :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현대미술관장, 문화예술정책실장, 지역문화정책관